



승진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64>
(修習止觀坐禪法要)

제8장 각지마사(覺知魔事) ③

마군의 삼종경계는 삼독심 때문

二者堆剔鬼 亦作種種惱惱行人 或如
蟲蟻緣人頭面鑽刺熾爛 或擊捫人兩腋
下 或乍抱持於人 或言說音聲喧鬧 及作
諸獸之形 異相非一來惱行人 應即覺知
一心閉目 陰而罵之 作是言 我今識汝
汝是閻浮提中食火臭香偷腦吉支 邪見
喜破戒種 我今持戒 終不畏汝 若出家人
應誦戒本 若在家人 應誦三歸五戒等 鬼
便卻行匍匐而去 如是若作種種留難惱
人相狀 及餘斷除之法 並如禪經中廣說
두 번째로 퇴척귀는 가장 악한 아찰귀
신이다. 수행자가 좌선을 할 때 이 귀신
이 찾아와 괴롭히는 경우가 많은데 갖가지
형상으로 수행인을 괴롭힌다. 벌레
나 전갈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얼굴을 기
어다니기도 하고, 푹푹 찌르기도 하며,
사람의 몸을 오르내리락하기도 한다.
이는 고통은 없지만 가려움을 견디기가
힘들다.

“나는 지금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다. 너
는 염부제 가운데서 불을 먹고 냄새를
맡고 스님들의 법랍을 도둑질하는 길지
(吉支)라는 귀신이다. 사된 견해로 계율
의 종자를 파괴하기 좋아하지만 나는 계
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너를 두려워하
지 않는다.”
이 귀신은 본래 계율을 파괴한 소치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계율을
들으면 수치스러운 마음을 일으키게 되
는데, 하물며 계율은 신장이 옹호하여
파괴한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것쯤이야
어렵겠는가.
만일 출가한 스님이라면 범법경 사분
률(四分律) 오본률(五分律) 등을 부지런
히 독송하고 재가신자라면 삼귀오계(三
歸五戒)를 외워야만 한다. 계율 하나에
다섯 신장이 옹호하기 때문에 오계만 해
도 스물다섯 호법신장이 지켜주는 것이
다.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계법을 외우

두 가지 선을 파괴하고 두 가지 악을 증
가시키는데 있다. 마군병사와 마군장군
을 파견하기도 하고 천자마 자신이 직접
찾아오기도 하는데, 수행과정에서 마
군은 조복받기가 가장 힘들다.
앞서 설명했던 퇴척귀와 시간 따라 흘
리는 두 마군은 파순의 면 권속이지만 지
금의 마뇌는 파순과 가까운 권속들이다.
두 가지 선과 두 가지 악이라 하는 것에
대해 말해보자면 사홍서원은 이미 일어
난 선이고 수행은 아직 일으키지 않은 선
이며, 견혹과 사혹은 이미 일어난 악이고
무명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이다.
이 마군은 수행인의 오근을 따라 세
종류의 오진경계 모습을 변화로 조작하
여 수행인의 도심을 타파하기를 가장 좋
아한다.
세 종류의 경계라 하는 것은 강한 마
군, 유연한 마군, 강하지도 유연하지도
않은 마군임을 유추해서 알 수 있을 것

스며 열반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마
군의 일이라고 부른다.
이 마군이 나타내는 세 종류의 경계는
삼독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삼종경계
중에 내 감정에 순종하는 기분좋은 경계
는 부모와 형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장엄한 부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히히닥거리고 웃으면서 하는 말과
노래하고 춤추고 음란한 구경거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는 탐애심을 따라서
일어난다.
또 내 감정에 위배되는 경계를 만드는
경우는 호랑이 사자 나팔 아차 등 두려
운 형상으로 찾아와 나를 속박하고 채찍
질하고 고문하는 등 공포스럽게 한다는
것이다.
내 감정에 위배 되지 않지만 그렇다
고 순종하지도 않는 경계는 일상적인 일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괴롭히거나
정신을 잃게 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여러
석은 마음에서부터 일어난다. 이것들이
바로 세 도적의 부류이며 세간을 탐애하
는 것도 모두가 마군의 일이다.
마군이 괴롭히는 것은 여섯 감촉에
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지금 다
섯 화살로 다섯 감정을 쏘고 있다는 것
은 실제로는 여섯을 말하는 것이다. 왜
냐하면 오근이 의근으로 전입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의근이 오근 가운데 포함
돼 있는 것이다.
천마파순은 육진경계로 부처님까지
도 괴롭히는데 하물며 유유적하게
수행하는 말세법부는 말해서 무엇 하겠
는가. 따라서 지관을 수행하는 가운데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말고 금강왕 보검을
가지고 부처가 오면 부처를 자르고 마군
이 오면 마군을 잘라 이 경계에서는 부
처다 증생이다 하는 분별심이 없어야만
한다.



종양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수습지관좌선법요 · 신유식콘텐츠 제작 보급
<동행학>은 지상강의에 연계중인 <수습지관좌선법요(원태소
지관)>와 호법유식의 비서(비서)서 새로운 유식학의 길잡이인 동행
학의 <신유식> 콘텐츠 제작 보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전
화나 메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010-9141-5482 so0532@hanmail.net

퇴척귀는 계율을 파괴한 소치 때문에 생겨
오본률·삼귀오계등 독송하면 바로 떠나가

면 귀신은 바로 설설 기어서 떠나간다.
이와 같이 갖가지로 수행자를 괴롭히
키는 모습과 귀신을 끊어서 제거하는 방
법은 선바라밀경(禪波羅密經)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것과 같다.
三者魔惱 是魔多化作三種五塵境界
相來破善心 一作違情事 則可畏五塵 令人
恐懼 二作順情事 則可愛五塵 令人心
著 三非違非順事 則平等五塵 動亂行者
是故魔名殺者 亦名華箭 亦名五箭 射人
五情故 名色中作種種境界惑亂行人 作
順情境界 或作父母兄弟 諸佛形象 端正
男女可愛之境 令人心著 作違情境界者
或作虎狼獅子羅刹之形 種種可畏之像
來怖行人 作非違順境界者 則平常之事 動
亂人心 令失禪定 故名魔魔
세 번째로 마뇌에 대해 밝히고 있는데,
이는 천자마라고도 한다. 마뇌의 목적은 거

이다.
마뇌는 화전(華箭)이라고도 부른다. 왜
냐하면 화살처럼 날아오는 한 떨기의 꽃
은 사람이 보았을 때엔 꽃이지만 실제로
는 그 중간에 한 개의 화살이 들어있어
수행인의 신경을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대론(大論)에서 이 문제에 대해 말하기
를 “마군은 지혜의 생명을 파괴하고 도
법을 무너지게 한다. 그 때문에 마군이라
고 명칭한다”라고 하였다. 모든 외도의
무리는 마군을 육계의 주인이라고 말하
는데, 이를 사람들은 화전이라고 한다.
또 마뇌는 오진(五箭)이라고도 부르
는데, 이는 오근을 따라 들어가 오근을 파
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법과 선법을
파괴하기 때문에 마뇌라고 부른다.
다음으로 세간의 번뇌 인연도 역시 마
왕의 힘이다. 이는 모든 부처님의 원수
로서 일체 생인을 파괴하고 인간사를 거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십이인연(十二因緣)

(4) 사지(四支)
십이인연은 다시 능인지(能引支), 소인지(所引
支), 능생지(能生支), 소생지(所生支)의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때문에 십이인연을 다시 십이유지
(十二有支)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支)는 원인의 뜻인데, 십이지가 삼계생사의
원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문제를 삼세양중인과
의 관점에서 관찰해 보면 현세에 바로 한 종류의
생사유전의 인과관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결과의
측면에서 원인을 추구하고 원인을 따라 결과를
부르는 측면에서 말해 보면 사람들의 일기생명
마다에는 결과로 이어지는 순간이 바로 다음의
새로운 원인을 잉태하는 상호관계성을 동시적으
로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세의 행인과 그 과
보의 관계는 끊없는 반복 순환관계를 형성하여
생사유전의 고통이 단절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인연법은 ‘이쪽 원인이 없으면 저쪽의
결과도 없고, 이쪽이 소멸하면 저쪽도 동시에 소
멸한다’는 인과율에 의거해서 괴로움의 결과를
부르는 직접적인 악업이라는 원인을 짓지 않는
다면 바로 악업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가령 중생 가운데 괴로움을 싫어한다면 반드시
열반법을 추구하여 괴로움을 부르는 무명번뇌
염법(染法)에서 해탈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연
상속의 연결고리를 잘라내고 영원히 삼계고해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불교의 모든 대장
경에 수록된 내용들이 전부 이 의미를 드러내 밝
혔을 뿐입니다.
사지(四支)를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
습니다.
①능인지
무명과 행을 말하는데, 이 둘의 원인이 ‘식’ 등
현재의 오과를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②소인지
본적인 아뢰야식 가운데 잠정된 미래의 이숙과
(異熟果), 즉 아뢰야식에 포섭된 ‘식’ 등 오과를
직접 일으키는 종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모
두는 무명과 행 등 과거의 이치(二支)를 이끌어올
려 발현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측면에선 미래
과이지만 미래가 아직 일어나지 이전의 측면에
선 현재의 오과입니다. 이는 단지 과거와 현재를
다른 시간대에서 주관과 객관의 관계성으로 분
류했을 뿐입니다.
③능생지
애 위 유훈을 말하는데, 미래의 생과 노사인 이치
에 근접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④소생지
생 노사는 애 위 유훈의 삼지에서 일어났음을 말
합니다.
이상은 시차별로 일어나는 삼세인과 관계를 주
관과 객관의 상대적 관계성으로 다시 분류했을
뿐입니다.
■정리=張如舟

21세기 불자 자가(自家)기도법
해조(解祖) 범산(梵山)큰스님이 쓰신 불자 한 사람이
꼭 한 권씩 수지 독송해야 할 “21C 불자 자가
기도법”이 드디어 불자님들께 선을 보입니다.
이 책은 한글만 아는 사람이면 자기 집에서 혼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으므로 불자
님들에게는 필수적인 경서입니다.
·해조(解祖) 범산(梵山)스님
·1949년 전남 순천출생
·불교학 석사(서울대)
·Buddhism과 인도철학의 비교 연구
·공사상에 대한 일고찰
·독서문화의 정착 범인에 관한 고찰 등
[저서]
·그 속에 길이 있었다 · 웃으며 가는 저승길
·공저 국역상용법요집 · 외 전문분야 다수
·한어대량 주지
[차례]
제 1장-기본학습
제 2장-중요경전
제 3장-불공법
제 4장-진언과 다라니
제 5장-각종발원문
제 6장-기도제법습기
제 7장-불사출판수지공덕
제 8장-내면탐사와
여래33천통기도
제 9장-자가기도법
제 10장-불고기초지식
제 11장-권선문
◆택배발송 (발송비 무료) ◆정가 30,000원
◆문의 : 055-761-7462 / 011-552-3222
◆계좌번호 : 농협 801032-51-032261
우체국 610790-01-001194 (예금주: 여래암)
홈페이지 www.yeraeam.com / cafe.daum.net/yeraeam

易理作名法
[당신도 作名大家가 될 수 있다]
이름은 한번 잘못 지으면 평생 후회하게 되고 다시
개명(改名)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시중(市中)에 나
와 있는 대개의 작명서(作名書)들이 한결같이 수리
(數理)와 오행(五行)에만 맞추어 이름을 짓고 있는데
만약 두 사람의 이름이 똑 같은 수리(數理)와 오행(五
行)이라면 두 사람은 똑 같은 이름의 영향력을 받는
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필자는 이러한 불합리한 모순
을 제거하고 본인의 사주(四柱)와 띠(年支)에 맞추어
짓게 한 것이다. 좋은 이름은 수리(數理)와 오행(五
行)은 물론이고, 주역팔괘(周易八卦)에 맞추어 지어
야 비로소 좋은 이름을 얻게 된다. 주역(周易)을 모르
는 사람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해설을
하였다. 이 책을 만나는 순간 눈이 활짝 열릴 것이다.
또한 그 사람의 이름이 길명(姓名)인지, 흉명(凶名)인
지를 그 자리에서 바로 판단 할 수 있다. 필자는 현재
大邱에서 많은 후학(後學)들에게 작명법(作名法)을
강의하고 있으며, 본서(本書)가 참다운 작명(作名)의
길잡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이다.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면 송달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역리작명법(易理作名法) 382쪽 (정가 : 30,000원)
◆著者 : 孫中山 (75세) 韓國易學學會 會長
◆계좌번호 : 농협 100080-56-022361 (손선영)
◆주문전화 : (053)324-2468 / 326-4585

육갑납음풀이
자연속에서
인연을 찾을 수 있다
오행육갑 납음속에서 가장 단
순한 이치로 우리 실생활과 접
목을 시키고 그 원리를 찾아서
인연의 관계를 풀어가며 누구
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되
었다고 봅니다.
이제까지의 음양과 오행은 전문가를
위한 학문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 글을 읽고는
누구나 알고 이용 할 수 있으며 이번 기회로 육갑납음
이 정립 될 수 있는 희망이 보였으면 합니다.
알고 있는 인연의 관계가 궁금하면 좋은 인연을 만난
다면 나에게 힘을 실어줄 인연을 찾으려면 부모는 선
택할 수 없어도 배우자는 맞는 인연을 찾아야 한다. 좋
은 자식을 얻으려면 출생전
부터 선택을 하여야 한다.
혼자는 살아 갈수 없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900가지의 예문이 길을 안
내 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총판 : 법무당
02)994-4437~8

2009년의 신수 비결이 출간 되었습니다.
“호타비결 = 신수비결”
●2009년 개인의 사주를 감정하여
●직업, 재물, 사업, 이성 운과 인연
●성적 및 학운, 일진 및 외출하는 날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나 운세를 바로 볼수 있고
●정확하여 적중율이 높습니다.
정가 25,000원.
“이름 대사전”
●대법원 선정 한자만 사용하여 이름 풀이까지 되어 있고,
●320여개의 성씨별로 삼원, 수리, 음령, 오행을 맞추고,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개명, 작명, 법명, 상호,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정가 : 50,000원
“호타 비결전서(상·하)”
●일년이면 최고의 프로그래밍이 될 수 있는 비서,
●한글 전용으로 누구나 쉽게 독학할 수 있음.
●책에 대한 질문은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정가 : 각 권 50,000원
호타암 주지원공합장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